교양기초교육연구 제4권 제2호 (2023) pp.77-114
https://doi.org/10.37998/LE.2023.4.2.3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이후의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 수강을 경험한 국내 대학생들의 인식체계 연구
: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민 웅 기*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대학생들에게 전면적으로 실시된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코로나 시기 이후 정상적인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 수강을 모두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수업 진행 과정에서 갖게 된 인식체계를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심층면접법을 통해 분석했다. 정상적인 오프라인 강좌에 참여하게 된 현시점에서 과거 실시간 온라인 강좌 참여를 통해 내재된 인식체계를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 시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학습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갖게 된 수강 학생들의 인식체계는 행위자로서의 인식체계인 상황적 행위의 상호작용성 범주와 강의구조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성 범주로 이원화되어서 나타났다. 상황적 행위의 상호작용성 범주는 다

* 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조교수, sunppk@mokwon.ac.kr

시 상황지표성과 상황반영성의 주제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은 사회심리적 제약성과 정보문화에 내재한 가상성의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그 이후의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 수강 경험에 대한 대학생의 양가적 인식체계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의 한 영역인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근거하여 분석가능했다. 그리고 이 인식체계가 외현되는 현상은 하나의 사회심리학적 개념이 포함된 의식 주체 및 객체 간 의미의 재구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코로나 시기가 완전히 종식된 후 대학교양강좌를 새롭게 정립할 때, 이 같은 문화현상의 상호작용론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더욱 체계적인 대학교양강좌 구조의 다양성을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 상황적 행위, 환경, 상호작용성

Ⅰ. 서 론

과거 한창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진행되었을 때, 전(全)지구적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 기제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조치들도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환경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과 함께 인간과 사회환경 간 상호작용이 그동안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기든스(A. Giddens)는 구조화 이론을 통해 모든 사회적 사실은 구조와 개인, 객관과 주관, 의식과 무의식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진행 과정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결국 하나의 구조는 지속적인 인간의 실천 과정에서 재생산된 산물임을 주장하기도 했다.[1)]

전술한 거시적인 사회적 위협 요인이 영향을 미친 코로나 시국에 국내

1) 안소니 기든스, 『사회이론의 주요 쟁점』, 윤병철 · 박병래 공역, 문예출판사, 1991.

대학에서도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가하는 여러 가지 생존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교수자와 학습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대학교육에서 인간 간 접촉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강의를 진행하기에는 여러 제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한국 사회에서는 급속하게 발달한 정보통신기술과 사이버 문화체계로 인해 전국의 대학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녹화를 통한 강의콘텐츠 방출을 시도하여 힘겹게 수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 요소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대학에서 대체로 다시 정상적인 오프라인 대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현상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실천한 여러 가지 분화된 대응 방식의 일면을 보여준 구조화된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은 수많은 복합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그 융합적 성격의 심리, 행동 양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시간적 간극을 두고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융합적 사회현상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종합적 지식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2] 기술적 네트워크와 즉시적 의사소통 구조 및 정보매체, 융합적 교육콘텐츠를 통해 현재 대학교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기까지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변화를 경험해왔다. 특히 과거 코로나 시기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현재의 오프라인 교육을 함께 경험한 고학년 대학생들의 경우, 분열적 문화구조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현상과 의식의 주·객체 간 상호 피드백 작용에 대해 더 분명한 인식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는 분명하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진행된 대학교육 이수 상황에서 나타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상황적 행위의 상호작용으로 내재화된 다양한 심리 상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체험하게 된 여러 가지 제약요인과 정보문화에 포함된 가상성의 실현 과정은 대학생으로서의

2) 김문조, 『융합문명론: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나남, 2013.

개인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화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3)]

코로나 시국 당시 교육자들 역시 학습자의 교육에 새로운 문화코드를 반영하기 위해 코로나 시기 이전에 지속되던 강의의 리듬, 속도, 간격 등을 성찰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고자 노력했다. 결국 현실화된 위험 상황을 맞이하여 대학교육 과정에서도 학습자와 교육자 모두 자발적 선택에 의한 교육 가치의 전달 과정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다.[4)] 이 같은 교육 과정에서의 노력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강의에 참여하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유대 및 연대 가치 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5)] 이처럼 현재 한국 사회는 위험성 극복에 대한 전문가 체계의 신뢰 구조 속에서 온라인 대학교육이 유지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6)]

코로나 시국에 진행된 대학교육 관련 연구 분야는 대부분 매체를 통한 온라인 강의로의 전환과 같은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설문을 통한 강의만족도 추이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제 최근 대학의 오프라인 교육 과정 진행이 정상화되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현재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차이를 분석해볼 만한 시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학에서는 서로 다른 이 두 교육체계를 모두 경험한 학생들이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코로나 시국에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 강좌와 현재 코로나 시국이 점차 극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프라인 대학교

---

3) Rose, David H., Meyer, Anne, & Hitchcock, Chuck (Eds.), *The Universally Designed Classroom: Accessible Curriculum and Digital Technologies,* Harvard Education Press, 2006, pp. 13-35.

4) Beck, Ulrich, & Beck-Gernsheim, Elisabeth,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2002, pp. 1-29.

5) 미셸 마페졸리, 『현대를 생각한다: 이미지와 스타일의 시대』, 박재환 · 이상훈 공역, 문예출판사, 1997.

6) Beck, Ulrich,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trans. by Mark Ritter, Sage Publications, 1992, pp. 3-8.

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인식체계를 탐색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 교양교육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내재화된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자 현상학적 이론에 근거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교양강좌가 운영될 때 교수와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구현되는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현상학 및 민속방법론의 기본적인 개념 틀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심층면접 대상자인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에 모두 참여한 대학생들의 수강 강좌에 대한 인식체계의 분석을 통해 그들의 심리 상태를 탐색적 수준에서 고찰하고, 대학교양강좌를 이끄는 상호작용론적 가치 체계의 본질과 재현적이면서 상징적인 성격을 지닌 대학교양강좌 수강 과정의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의 인식론적 패러다임

1) 상황적 행위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의 의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문화코드가 나타났고, 그 현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정된 생활문화적 패턴들은 탈중심화되고, 인간의 의사소통 구조 역시 다중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이 다중적 성격의 문화코드를 분석하는 과정에 기존의 이론적 논의만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시대에 직면해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일찍이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인간의 심리, 행동상의 변화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같은 현실 때문

에 상황적 행위에 대한 해석을 위해 현상학(phenomenology)의 이론적, 연구방법론적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현상학은 인간의 표현된 행동처럼 실제 사상(事象)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이론이자 연구방법론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현상학의 연구대상은 외부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물론 그 현상 내부에 내재한 의식과 감정까지 모두 포함한다.[7)]

현상학은 일찍이 후설(E. Husserl)에 의해 진행된 의식의 인식론적 분석 과정을 통해 정립되었다.[8)] 현상학은 이론 구성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인간의 순수한 의식 속 체험과정에 주어진 여러 가지 지향성의 발견에서 그 논의가 시작된다. 이 같은 현상학의 이론적 전제는 한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변형되지 않고, 의식 속에 주어진 영역으로서 생생하게 구현된 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근거를 마련해준다.[9)] 한편 연구자들은 현상학적 분석에서의 환원을 통해 인간의 주관에 의해 드러나는 의식을 탐구하는 관점의 전환을 마련한다. 인간의 사유에 입각한 현상의 세계를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의식 주체가 특정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현재 주어진 상황 및 사회적 실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10)] 그래서 현상학 관련 연구는 현대 문화이론적 맥락에서의 상호작용론적 논의를 통해 연구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상황, 맥락, 문화 등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후설의 이론적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과학적 적용은 슈츠(A. Schütz)의 현상학적 논의를 통해 확장된다. 해석적 이해를 통한 이 연구방법론은 개인의 일상적 의식을 통해 체험되는 사회 세계(social world)

---

7) 박인철,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아카넷, 2015.
8) Husserl, Edmund,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s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An Introduction to Phenomenological Philosophy*, trans. by David Carr,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pp. 257-268.
9) 피에르 테브나즈, 「옮긴이의 말: 현상학적 사유란 무엇인가?」,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후설에서 메를로퐁티까지』, 김동규 역, 그린비, 2017, 106~114쪽.
10) 박인철, 앞의 책.

의 기본 구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1] 슈츠의 연구방법론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개인이 일상의 문화에서 상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세계에서 타인의 행위가 갖는 심층적 의미를 해석하여 이를 충실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방식을 취한다. 연구 과정에서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내재된 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문화적 해석을 낳게 한다.

소위 해석학적 관점에서의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추구하는 이 학술적 논의들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환경 사이의 구체적인 상황적 행위에 대한 구조성을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즉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사실에 관한 연구는 현상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체계 공유와 해석을 통해 구체화된다.[12]

한편 본격적인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분석단위로 고찰되고 있는 개념인 자기(self)는 어떤 현상을 함께 체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공동의식을 통해 감정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의식의 주체로서 연구되고 있다. 현재의 정보사회에서 자기는 개인화를 나타내는 의식의 주체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가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 다시 집합성을 띠는 상호주관적 행동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새로운 주체성을 강화해주는 의식의 단위로 기능하게 된다.[13] 정보문화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에서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로서 인간이 지닌 자기의 사고방식을 세밀하게 파악해야만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상학의 학문 영역은 주관적 다양성을 통해 현상의 의미 규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논의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 분야

---

11) 손민호 · 조현영, 『민속방법론: 현상학적 사회학과 질적 연구』, 학지사, 2014;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제7판), 김미숙 외 공역, 을유문화사, 2014.
12) 손민호 · 조현영, 앞의 책.
1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문화 이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 정보문화 현황 진단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이다. 과거 객관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서양철학 및 연구방법론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에는 이 이론적, 연구방법론적 관점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현상에서의 세계와 대상은 하나의 주관적 현상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행위 내부에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실체와 본질이 있을 수 있다. 현재는 연구 과정에서의 형이상학적 실체를 거부하고, 주관적 체험을 통한 인식 주체의 지향성을 강조하고, 대상과의 상호작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 분야 역시 확장되고 있다. 진리 탐구 방식의 주관성과 상대성에 대한 의식적 체험과정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상호작용론의 범주로서의 현상학 연구는 현재 인간을 연구하는 연구방법론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14] 바로 이러한 이론적, 연구방법론적 특성 때문에 현상학은 코로나 시국과 코로나 시국이 차츰 정리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대학 교양교육을 함께 경험한 대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체계를 분석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

2) 민속방법론에 의한 상황지표성과 상황반영성의 분석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은 가핑클(H. Garfinkel)에 의해 주로 논의된 개념으로 인간이 취하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사유체계에 근거하여 행위를 연구하는 이론이다.[15] 민속방법론은 상황적 추론방식과 실제 행위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일상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과정에 적용된다. 민속방법론은 사회구조 자체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일상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상호작용 행위와 그 질서의 구성원리를 분석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상황적 질서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구조화된 질서를 관찰하고 구성하면서 질서 속에 내재해 있는 현상의 본질을 찾게 해 준다.[16]

---

14) 박인철, 「현상학의 학문성과 지평성: 후설 후기 철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53집, 철학연구회, 2001, 225~247쪽.
15) 손민호 · 조현영, 앞의 책.

민속방법론자인 가핑클은 자기 관찰로 이루어진 현상의 본질에 대한 슈츠의 설명과 조금은 다른 관점을 취했다. 가핑클의 입장에서는 사회 세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공유하는 의미의 합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관된 사회문화를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서로의 의도와 해석을 탐색하고 조율하는 인간의 암묵적인 활동 때문이라고 보았다.[17] 바로 이 상호작용 현상이야말로 민속방법론이 실증주의적 사회 분석과는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가핑클에 의하면 상황에 대한 인간의 지각적인 속성은 실천적 행위와 추론에 의해 당면한 상황에 따라 생성된다. 인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관여하면서 그 상황의 의미를 스스로 인식하고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18] 이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간이 서로 개입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표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호작용 과정에서 해당 의사소통의 실체를 분리, 결합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19]

이 민속방법론은 사회과학 분야의 여러 가지 연구방법과 함께 교육 관련 이론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질적 속성의 구조적 특성을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식이 단순한 콘텐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 측면에서 전달되고, 그 맥락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은 결국 지식에 내재한 진정성(authenticity)의 체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20]

---

16) 손민호 · 조현영, 앞의 책; Garfinkel, Harold, & Sacks, Harvey, “On Formal Structure of Practical Actions”, edited by John C. McKinney & Edward A. Tiryakian, *Theoretical Sociology: Perspectives and Developments*, Appleton-Century-Crofts, 1970, pp. 337-366.
17) 손민호 · 조현영, 앞의 책; Ibid., pp. 337-366.
18) 손민호 · 조현영, 앞의 책; Loc. cit.
19) 이진경, 『노마디즘: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1, 2』, 휴머니스트, 2002; Deleuze, Gilles, & Guattari, Félix, *What Is Philosophy?,* trans. by Hugh Tomlinson & Graham Burchell,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p. 15-60.

이 같은 민속방법론적 관점에서 인간 행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황지표성(indexicality)과 상황반영성(reflexivity)을 고찰해야 한다.[21] 질적연구방법으로 도출된 민속방법론은 결국 상황 및 맥락 간 상호작용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연구 과정에 구체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상황지표성이란 사람들의 발화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발화 주체의 개인적 의도나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발화가 일어난 상황 자체를 지적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상황의 맥락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저기, 이것, 저것, 지금, 어제 등의 지시적 표현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상황의 본질을 해석해야 함을 뜻한다.[22]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가핑클과 삭스(H. Garfinkel & H. Sacks)는 상황지표성이 현실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춰 이 특성을 모든 표상, 말, 활동 등에 확장하여 적용했다. 상황지표성은 사람들의 언행에서 표현되는 중요 속성이며, 어떤 사건, 현상을 진술하는 지시내용조차도 그것이 사용되는 국지적 상황에서만 이해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23] 따라서 어떤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되어 거기에서 새로움과 낯선 감정을 느끼게 되며, 그 상황의 맥락에 대한 이해는 의식적 추론과 행위적 실천을 통해 진행되는 종합적인 인식을 거쳐 구체화된다.

한편 상황반영성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주목하는 맥락과 상황 자체만을 다루지 않고 관찰 대상과 관찰자의 관계, 보이는 것과 본 것의 관계, 조사대상자 및 연구자의 개인적 상황까지 포함한 탐구를 통한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상황과 행위는 반영적 관계이며, 그 관계는 실천 행위로 나타난다. 상황반영성과 관련하여 일찍이 슈츠는 개인의 지각이나 행위는 그 자신의 기획, 개념, 아이디어 등으로 의도된 상호 간 기획

---

20) MacCannell, Dean,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Macmillan, 1976, pp. 91-107.
21) 손민호 · 조현영, 앞의 책.
22) 손민호 · 조현영, 앞의 책.
23) Garfinkel & Sacks, op. cit., pp. 337-366.

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았으며, 가핑클은 사람들의 지적 행위가 여러 상황 속에서 훨씬 구체화되어 인간에게 내재된 상태로 이루어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상황반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위를 둘러싼 맥락을 꾸준히 살펴보아야 한다. 민속방법론에서 다루는 상황반영성 개념 속에서 행위자는 규범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그것을 활용하는 존재로 상정된다. 그리고 이 개념에는 결국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을 인간 스스로의 의도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 내재해 있다.[24] 즉 인간을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본질을 조율하는 실천적 행위자로 보는 것이다.

2. 환경과의 사상(事象)적 관계 형성과 사회심리적 논의

1)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방해요인에 의한 사회심리적 제약성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 또는 세상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과정(precess)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 개념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진행되며, 커뮤니케이션 주체와 상대방이 상호 연결되는 일련의 상호작용적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요소에는 메시지의 송·수신자,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 생성하는 신호인 메시지, 메시지가 이동하는 통로인 채널, 송·수신자가 서로에게 반응하는 피드백, 메시지를 방해하는 잡음(noise),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세팅(setting) 등이 있다.[25]

---

24) 손민호·조현영, 앞의 책.
25) 오미영·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알기 쉬운 커뮤니케이션 길라잡이』, 커뮤니케이션북스, 2021.

사람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self)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를 자기지각이라고 한다. 자기지각은 항상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 자극을 감각적으로 선택하여 해석하면서 자신만의 의미 있는 관점으로 바꾸는 복잡한 인식 행위이다.[26] 이 같은 심리 과정은 인식 주체가 과거에 경험한 일을 현재의 지각으로 해석하면서 새로운 경험 기제로 전이시키기도 한다.[27] 따라서 자기지각 역시 타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각은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타인이나 정보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각은 대부분 불안정한데, 그 이유는 인간이 환경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해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지각은 인지, 감정, 해석, 평가 요소를 내포한다.[28] 이 각각의 요소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인간은 시각상과 청각상, 그 외의 심상과 아울러 해당 환경에서 어떻게 스스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고를 수시로 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환경과 이와는 다른 대안적 환경을 서로 비교하기도 하며, 과거 경험을 상기하여 현재 환경에 적용하기도 한다. 인간이 지각하는 환경적 자극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성화나 순응의 반응을 거치기도 하며, 자극이 일정하게 지속되었을 경우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점차 약화되기도 한다.[29]

---

26) 폴 A. 벨 · 토마스 C. 그린 · 제프리 D. 피셔 · 앤드류 바움, 『환경심리학』, 이진환 · 홍기원 공역, 시그마프레스, 2008;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2017.

27) 민웅기 · 김상학,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집합기억과 시민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40권 제2호, 2021, 65~71쪽.

28) Ittelson, William H.,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urban experience”, *Environment and Behavior* 10(2), 1978, pp. 193-213.

29) Bryan, M. E., & Tempest, W., “Are our noise laws adequate?”, *Applied Acoustics* 6(3), 1973, pp. 219-232.

이처럼 인간은 환경과의 사상적 관계 형성 중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동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행동제약이론에서 말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중 인간이 제약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30]

첫째, 해당 상황에 대한 통제력 지각의 상실이다. 이 현상은 환경자극과 관련한 행동제약모델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이며, 환경에 있는 어떤 것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바를 제한하거나 방해함으로써 상황 통제에 대한 인식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다.[31] 둘째, 환경이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지각했을 때, 인간은 불편함을 경험하고 바로 통제력을 찾으려 노력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심리적 반발이라고 한다.[32] 인간은 이를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회복하고자 애쓰게 된다.[33] 셋째, 환경상의 제약이 반복되면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을 경험하게 된다.[34] 통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반복적인 노력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그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추후 인간 스스로 통제력이 회복되더라도 통제력을 얻으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만다. 이처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는 다양한 방해요인이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회심리적 제약을 받게 된다.

---

30) 폴 A. 벨 · 토마스 C. 그린 · 제프리 D. 피셔, 앤드류 바움, 앞의 책.

31) Rodin, Judith, & Baum, Andrew, “Crowding and Helplessness: Potential Consequences of Density and Loss of Control” edited by Andrew Baum & Yakov M. Epstein, *Human Response to Crowd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78, pp. 389-401.

32) Brehm, Sharon Stephens, & Brehm, Jack Williams, *Psychological Reactance: A Theory of Freedom and Control*, Academic Press, 1981, pp. 98-117.

33) Strube, Michael J., & Werner, Carol, “Psychological reactance and the relinquishment of contro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2), 1984, pp. 225-234.

34) Garber, Judy, & Seligman, Martin E. P. (Eds.),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s,* Academic Press, 1981, pp. 3-34.

2) 정보문화의 가상성

정보문화의 여러 가지 속성 중 인간 행위나 소통의 대상이 되는 객체의 두드러진 특징은 실제 현실이 아닌 세계에서 인간이 활동하게 되는 가상성이라 할 수 있다.[35] 사이버공간의 주요 특징인 이 속성은 실물이 없고, 허구적 세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 분명한 인간의 활동성과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됨을 가정한다. 그리고 일단 이 세계를 접하게 된 인간은 오프라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의 체험을 통해 기존의 삶과 다른 형태의 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보드리야르(J. Baudrillard)는 초현실(hyper-real)적 성격의 가상현실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를 현대에 적용하면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허구 세계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36]

정보문화의 가상성은 그 파생 과정에서 존재 형태와 구성 방식의 두 가지 차원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먼저 존재 형태에서 나타나는 정보문화의 속성은 중층성이다. 중층성은 서로 상이한 다른 차원의 성격들이 일정한 층위를 이루면서 병존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37] 즉 다양한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공간에서 접속자 수만큼 다양한 환경적 특성이 공존함으로써 행위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다양성을 포함하여 서로 배타적, 반대되는 경우도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가상성의 파생적 차원 중 구성 방식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조합성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정보문화의 성격 중 하나이다. 이는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이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학술적으로 조합성의 이러한 속성은 중층성과 동일하지 않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는 것을 중층성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조합성은 그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함께 작동한다는 특징을 띤다.[38]

---

3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앞의 책.
36) 김문조, 『디지털 한국 사회의 이해』, 집문당, 2006.
37) 김문조, 「한국 정보 문화의 특성과 현황」, 『사회와 이론』, 제16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0, 125쪽.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양성이 모여 다른 새로운 현상이나 사물을 창조 또는 구성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거나 발전 방향을 이끌기도 한다. 이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공론 및 소통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결국 상술한 정보문화의 가상적 속성은 의식 주체와 객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된다. 특히 초현실적 외부 세계가 지닌 기술적 특성은 현실 세계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특정한 생활양식을 발현시키는 변이현상을 낳기도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의 현상학 및 민속방법론적 고찰을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이 이론적 논의를 연구방법론에 적용하여 질적연구방법의 하위 영역인 심층면접법(in-depth interview)을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인식체계와 행위 양식을 직접 관찰하고, 그들의 심리와 행동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자의 말의 내용, 크기, 속도 등 다양한 특징을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형태로 의미화할 수 있도록 담화내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심층면접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39]

본 논문은 현재 대학생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를 들어본 경험과 코로나 시기 이후 현재의

3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앞의 책.
39)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Mason, Jennifer, *Qualitative Researching,* 2nd ed., Sage, 2002, pp. 62-83; Stake, Robert Earl,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1995, pp. 49-68.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를 들어본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에게는 국어, 외국어 등의 어학 교과목이 아닌 인문학, 사회과학과 관련한 일반 대학교양교과목을 수강하고 자신들이 인식한 내용들을 언급하게 했다. 그들에게 코로나 시기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현재의 오프라인 강의를 비교하여 어떤 심리적 태도가 형성되었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했다. 면접 및 분석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비교, 대조되는 내용이 기술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황적, 환경적 특성에 의한 그들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더 친밀한 담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응답 내용과 관계없는 이야기도 진행하면서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40] 면접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접 장소는 편안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강의실, 교강사실, 카페의 스터디룸 등으로 선정했다.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현상학적 사회철학 이론을 토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 연구방법론의 한 범주인 콜레지(P. F. Colaizzi)가 제시한 분석 프레임을 활용했다. 조사에 참여한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은 주제(theme)와 주제군(theme cluster), 그리고 범주(category)로 나누어, 해당 응답 내용을 분석했다.[41] 이 같은 분석 프레임을 통해 대학생들이 경험한 코로나 시국의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에 대한 심리적 측면의 의미구성 과정을 해석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실시간으로 진행된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코로나 시기 이후에 강의실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에 모두 참여한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교양강좌 운용방식을 비롯하여 교육자, 학습자, 교육매체, 물리적 교육환경 사이에서 이

40) Mason, op. cit., pp. 62-83; Stake, op. cit., pp. 49-68.
41) Colaizzi, Paul 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edited by Ronald S. Valle & Mark King,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48-71.

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인식론적, 상호작용론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심층면접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층면접 대상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간략하게 공지했으며, 섭외 후 심층면접 장소에서도 다시 한 번 연구의 목적을 구두(口頭)로 전달하였다. 앞서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현상학 및 민속방법론과 같은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연구참여자가 코로나 시기의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코로나 시기 이후의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 참여를 통해 느끼게 된 다양한 감정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연구자는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언급한 답변 내용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2. 조사기간 및 연구참여자 특성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면접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실시간으로 진행된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이후 코로나가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학교양강좌를 모두 수강한 경험이 있는 총 아홉 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응해주었다. 조사는 2022년 5월 9일~2023월 4월 6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 과정은 연구자의 사전 조사를 통한 면대면 섭외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코로나 시기(2020년 1학기~2021년 1학기)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2022년 2학기~2023학년 1학기)에 현재 형태의 오프라인 강의에 모두 참여했던 학생들을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고학년인 3, 4학년생들이 심층면접 대상자가

되었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가 함께 진행될 경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의(偏倚)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심층면접은 대면조사로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에서는 연구방법의 신뢰도 및 정확성, 자료의 타당성, 분석의 일반화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Mason, 2002).[42] 이에 연구방법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전술한 두 시기에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를 모두 수강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심층면접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했으며, 심층면접 후에는 면접 내용이 누락, 왜곡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그 내용을 직접 필기하여 정리했다. 면접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면접 대상자에게 다시 묻고, 해당 내용을 재확인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면접참여자들이 언급한 내용 중 생략된 단어 등은 연구자가 구분하여 정리했다.

또한 본 논문은 작성 과정에서 중립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 등의 개념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했다(Guba & Lincoln, 1981).[43] 자료 해석 과정에서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심층면접 참여자 진술의 의미를 파악할 때, 판단중지를 유지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존 심층면접 전문가들의 선행연구에 기술된 분석자료를 참조하여 본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 결과물을 확정하여 도출했으며, 분석 결과가 심층면접 참여자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들의 인식체계에 대해 정리한 분석 결과를 심층면접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사실성을 확인받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심층면접 대상자인 대학생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42) Mason, op. cit., pp. 24-48.

43) Guba, Egon G., & Lincoln, Yvonna S.,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1981, pp. 103-127.

〈표 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심층면접 참여자 구분	성별	연령대	학년	전공 계열	소속 대학의 지역	학습 및 정보 습득 목적 외 인터넷 하루 평균 이용시간
참여자1	남	20대	3	인문	대전	2시간
참여자2	여	20대	4	인문	대전	4시간
참여자3	남	20대	3	사회	대전	1시간
참여자4	여	20대	4	사회	서울	2시간
참여자5	여	20대	4	사회	서울	2시간
참여자6	남	20대	3	이공계	서울	1시간
참여자7	남	20대	4	이공계	대전	3시간
참여자8	여	20대	4	예체능	대전	4시간
참여자9	여	20대	4	예체능	대전	3시간

Ⅳ. 분석결과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 및 코로나 시기 이후에 진행된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 수강 경험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체계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이 언급한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이 분석 과정을 통해 온·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의 학습자인 대학생들이 강의 중 어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그들에게 내재화되는 인식체계의 본질을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1.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코로나 시기 이후에 진행된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 수강 경험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체계 비교

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 수강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심각했던 코로나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에 참여하여 형성된 인식체계를 살펴보면, 총 14개 주제와 4개 주제군, 그리고 2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 수강 및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 실시된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 수강을 모두 경험한 대학생들의 인식체계 비교

주제 (theme)	주제군 (theme cluster)	범주 (category)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교수와 내가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서로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상황 지표성	상황적 행위의 상호 작용성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수업 중 직접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과업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때와는 달리 마치 TV나 동영상을 보는 기분이다.		
온라인 강의를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강의내용과 주제에 관계없이 모두 비슷하게 느껴진다.		
온라인 강의를 함께 듣고 있는 학생들의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 강의를 듣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상황 반영성	
온라인 강의는 교수님과의 의사소통이 없거나 만약 있더라도 강의 중간에 즉시 손을 들거나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와는 달리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잠깐 졸음이 오거나 몸이 피곤할 때 나만의 방법으로 몸 상태를 강의 듣기에 좋게 만들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편하다.		

주제 (theme)	주제군 (theme cluster)	범주 (category)
온라인 강의 시간에는 교수님이 나를 관찰하고 있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애초부터 상호작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된다.		
처음 실시간으로 진행된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오프라인 강의에서와 같은 소통방식을 시도했으나,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사회 심리적 제약성	환경과의 상호 작용성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즉시 질문을 하고 싶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바로 물어보고 싶어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아니라서 나 하나 때문에 집중하는 수업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어서 질문을 하기가 어렵다.		
원래 강의실처럼 강의에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기 때문에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하면서 집중하기가 힘들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도 별도의 채팅창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 들어가 참여하는 수업만큼 순수하게 강의만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정보 문화의 가상성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의 강의 모습, 강의안, 시청각 자료들이 동시에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함께 강의에 적용하면 그냥 수업을 들을 때보다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바로 앞에서 교수님이 진짜 강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옆에 없고 멀리 떨어져서 온라인 화면으로만 보이는 것임을 수시로 분명하게 느끼면서 강의에 참여하게 된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강의에 참여할 의지만 있으면 강의실에 접속할 수 있어서 편하다.		

1) 상황적 행위의 상호작용성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코로나 시기 이후에 진행된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 수강을 모두 경험한 학생들의 첫 번째

인식체계 범주는 상황적 행위의 상호작용성이다. 이 범주는 상황지표성 및 상황반영성이라는 두 개의 주제군으로 분류가능하다. 첫째, 상황지표성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다.

참여자1의 경우, 코로나 시기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육자와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 …아무리 실시간으로 접속한다고 해도 지금 교수님과 함께 강의실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강의 시간에도 교수님과 내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어떨 때는 교수님의 입 모양을 보고, 학원 동영상 강의를 듣는 기분도 들었어요…일단 나랑 떨어져 있다고 느끼면서 그냥 시공간적으로 이질적인 사람이 되고…아마 교수님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요?…(참여자1).

참여자3은 단순하게 강의내용만 들으면서 수업에 참여하고, 직접 본인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혼란을 이야기했다.

>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교수님이 수업 중 특별한 참여를 요구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교양 강의라서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동영상을 통해 수업을 듣게 되니까…교수님 입장이 이해됩니다. 그래서인지 교수님이 온라인 강의 중에는 직접 무엇을 하라고 시키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내가 참여해야 하는 구체적인 과업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TV나 유튜브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참여자3).

참여자5의 경우, 실시간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접속하는 매체로 인해 느끼는 자신의 심리적 태도와 착각을 언급하기도 했다.

> …사실 따지고 보면, 교수님의 강의내용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교수님이 학생들 집중하라고 더 상세하게 설명

해주시고 강의내용도 알찬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의 시간에 수업 외의 다른 이야기도 훨씬 덜 하시구요…하지만 강의를 보는 화면이 컴퓨터나 노트북 모니터이다 보니 그냥 제 느낌상 교과목에 관계없이 내용이나 주제가 다 비슷하게 느껴집니다…그래서 더 지루하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참여자5)

둘째, 상황반영성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다.

참여자2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에서와는 달리 타 학생과의 관계 부재에서 비롯되는 상황이 강의에 반영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양강좌는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함께 듣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학과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거든요…학생들 눈치 보면서 나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저는 수시로 교수님께 강의 중간에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학생들의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해가 안 가는 건지, 모두 다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알기도 어렵고…혼자 강의를 듣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어려운 내용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포기하고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참여자2).

참여자4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 특성상 질문을 주고받는 활동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교수님과의 의사소통이 거의 없거나, 만약에 있더라도 강의 중간에 손을 들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설명하기는 어렵지만…온라인 접속 프로그램에서 교수님께 질문하겠다는 표현을 하는 것과 직접 손을 들고 교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질문할 때 느끼는 점이 뭔가 다릅니다…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여하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프라인 강의와는 달리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어도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참여자4).

한편, 참여자7의 경우,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온라인 강의라고 해도 일단 실시간으로 진행되니까 수업을 함께 듣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잠깐 졸리거나 몸이 피곤할 때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잠시 엎드렸다 일어나면서…저는 강의 시간에 계속 졸리면서도 참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아주 잠깐 엎드려서 눈 붙이고 일어나면 더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나만의 방법으로 몸 상태를 강의 듣기 좋게 유지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참여자7).

참여자9의 경우,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는 교수자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시선 마주침에 의한 강의 고유의 상황이 부재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 …아무리 의식을 안 하려고 해도 일단 교수님이 나를 관찰하고 계시지도 않고,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수업하시는 교수님의 동영상 모습을 집중해서 보지 않았습니다…전공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온라인 교양강좌의 경우 긴장도 좀 풀리고…가장 안 좋은 점은 교수님이나 학생이나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점 같습니다…(참여자9).

2) 환경과의 상호작용성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코로나 시기 이후에 진행된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 수강을 모두 경험한 학생들의 두 번째 인식체계의 범주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이다. 이 범주는 사회심리적 제약성 및 정보문화의 가상성이라는 두 개의 주제군으로 분류가능하다.

첫째, 사회심리적 제약성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다.

참여자3의 경우, 실시간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강의 참여의 제약성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 현상이 나타났다.

> …저는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은 바로바로 물어보고 답을 들었는데, 갈수록 저 때문에 자꾸 강의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구요…채팅창에서 어떤 학생은 저한테 살짝 무안한 말도 올리고…집중해야 할 강의 분위기가 깨져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에 저도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참여자3).

참여자5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서 질문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서 강의를 듣게 되면서 느끼게 된 심리적 제약성을 언급했다.

> …원래 제 강의 듣는 스타일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는 것은 즉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질문을 하고 싶거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을 때 바로바로 물어보고 싶어도 교수님과 즉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아니니…다른 학생들은 다 아는 것인데 나 하나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어서 질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그나마 전공수업은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도 되는데, 교양과목은 다른 학생들의 지식이 저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질문하기가 더 떨렸습니다…(참여자5).

또한 참여자8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의 물리적 환경과는 다른 온라인 수업의 환경상 특징이 강의 참여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 …원래 강의실에는 책상과 교탁, 마이크,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미디어 시설까지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졸음이 오다가도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는 순간적인 생각이나 열심히 수업을 듣겠

다는 다짐 같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온라인 강의는 수업에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어떨 때는 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강의를 듣지 못한 경우도 있구요…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수업을 듣는다던지 집중하기가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참여자8).

둘째, 정보문화의 가상성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다.

참여자1의 경우, 정보문화의 가상성에 내재한 중층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했다.

…강의내용을 들으면서도 따로 별도의 채팅창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부담 없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다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 들어가서 듣는 수업만큼 순수하게 강의만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서 강의를 들으면 더 효과적으로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데…다른 일을 하면서 강의를 들을 때도 많아서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있었습니다…(참여자1).

참여자4는 정보문화의 가상성에 내재한 조합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강의 참여 중에 진행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언급했다.

…강의를 듣다보면 온라인 수업이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교수님의 강의 모습, 강의안, 시청각 자료들이 동시에 학생들한테 보이고,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이 그것들을 집중해서 받아들이고 모두 다 강의에 적용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직접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참여자4).

또한 참여자6의 경우,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라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에서 보이는 교수자의 모습이 실제로 대면하여 직

접 보는 모습이 아닌 화면상의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말했다.

> …저는 원래 강의 시간에 가장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듣거든요…그런데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제가 가장 심적으로 어려웠던 점은 교수님이 바로 앞에서 진짜로 강의하시는 것이 아니라…교수님이 지금 내 옆에 없고 멀리 떨어져서 온라인 화면으로만 보이는 존재임을 계속 느끼면서 수업을 듣는다는 점입니다…어디까지 생각했냐면, 교수님이 화면에서 뒷배경을 가리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셨을 때, 화면 뒷배경이 연구실의 책장인 경우가 많아서 진짜 학교에 가서 듣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참여자6).

참여자9는 수업 중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의 가상성 때문에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속가능하며, 이로 인해 느끼게 되는 심리적 편안함과 편리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했다.

>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제가 몸이 아프거나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까지의 통학시간 때문에 지각을 할 것 같은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습니다…강의 시간에 온라인 접속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지면 시간과 장소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제가 강의에 참여할 의지만 있으면 강의실에 접속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일단 편했습니다…(참여자9).

2. 분석결과의 논의사항

위 분석 과정을 통해 코로나 시기의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이후의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를 모두 수강했던 학생들의 인식체계를 현상학 및 민속방법론으로 대표되는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았다. 이들의

인식체계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상황적 행위의 상호작용성 측면에서 해당 인식체계를 고찰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현재의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 간 비교를 통해 과거 낯선 문화적 산물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감정적 사고들을 자연스럽게 제시하였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의 강의내용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황적 요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중요한 점은 조사대상자들이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를 들으면서 강의에 대해 느끼는 인식체계가 과거 많은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바와 같이 강의내용이나 교수법뿐만 아니라 수업을 듣는 상황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지식 체화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실시간으로 진행된 대학교양강좌에서 학습자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매체가 지닌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단순히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지닌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교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 속에서 인식하게 되는 행위자 본위의 심리적 제약성과 가상 세계로의 접속 사실에 대한 사고를 뜻한다. 코로나 시기에 녹화가 아닌 실시간 온라인 방식의 대학교양강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강의에 접속해 있는 현재의 모습이 이미지(image)화된 상황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44] 똑같은 지식 콘텐츠를 교육받고 있으나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가상의 의사(擬似)이벤트(pseudo-event) 형태로 진행됨으로써 그것이 시연된 진정성(staged authenticity)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매체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정성에 대한 학습 욕구가 학습자에게서 나타나기도 했다.[45]

---

44) 미셸 마페졸리, 앞의 책; 존 버거,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사회』, 강명구 역, 나남출판, 1999.

45) Boorstin, Daniel Joseph,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대학생들은 환경적 상호작용성 속에서 심리적 제약성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살려 중층성의 가상적 상황이 잘 활용된 경우, 온라인 매체가 담보하는 개인화된 선택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지식 콘텐츠에 대한 주도적 검색 등을 통해 조합성이 확보된 유용한 집합적 학습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적 역할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46] 이는 결국 대학교양강좌의 지식 텍스트 수용과정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학습자의 욕구를 잘 나타내는 분석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존재론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논의가 아닌 인식론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논의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 분석 패러다임은 현상에 내재한 사실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인식체계를 통해 스스로 현상과 사물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규정하면서 해석학적 상황을 만들어 나가게 됨을 지지하는 이론적 체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식 주체와 대상은 일대일의 대응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태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지표를 통해 얽히면서 만나게 된다. 이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약속과 규율을 문화코드라 한다.[47] 많은 문화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자연의 세계나 사물의 세계를 만날 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자 암묵적 약속을 행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과거의 경험과 환경은 바로 이 해석의 문화코드를 만들어내는 원류가 되는 것이다.

예전 코로나 시기에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는 의식 주체인 학생이 상황적 행위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와 구별되는 다양한 문화코드를 형성하는데 일정 부분 그 기능을 담당했다. 학습 공동체의 가치와 기호는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우연성의 위험으로 인해 효율성과 통제의 근대적 문화가 당시 대학 사회에 적용되었

Harper & Row, 1964, pp. 77-117; MacCannell, op. cit., pp. 91-107.

46) Beck & Beck-Gernsheim, op. cit., pp. 1-29.

47) 이기상 · 박범준, 『소통과 공감의 문화콘텐츠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HUINE), 2016.

음은 분명하다.[48] 대학교양강좌를 이끈 강의콘텐츠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인간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인간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상호작용성을 환기시켰다.[49]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적 변화가 결국 인식 주체인 학습자에게 영향력을 미쳐 의식 주체와 객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다층화된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50]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이 어느 정도 안정된 현재의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 수강 경험에 대한 국내 대학생들의 인식체계는 상호작용론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분석가능했다. 본고에서 적용한 상호작용론의 이론적 범주라 할 수 있는 현상학 및 민속방법론적 관점에서는 상황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 주체의 사고 과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온·오프라인 대학교육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교수법, 학습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본고에서는 그러한 논의를 넘어서 상호작용론적 관점의 이론을 토대로 학습자의 인식체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이다. 또한 연역적 연구가 아닌 심층면접법을 통해 현상학적, 민속방법론적 관점에서 귀납적 연구방법으로 조사대상자의 인식체계를 분석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과거 코로나 시국에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

48) 조지 리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김종덕·김보영·허남혁 공역, 풀빛, 2017.
49) 박인철, 앞의 책.
50) 유평근·진형준, 『이미지』, 살림출판사, 2005.

강좌와 현재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를 모두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인식체계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는 여러 교수법을 고민하고 있는 각 대학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탐색적 연구 결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기의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교육체계 모형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결과 인간 생존의 위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었다. 과거 코로나 시국을 겪은 의식 주체가 지닌 감응은 현재 자신이 속한 환경적 구조에서의 심리적 인식체계를 기억을 통해 스스로 재구성하고 발현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탈경계적 인식체계는 결국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많은 수의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학교양강좌의 경우 상호작용성이 강화되어 그 외현적, 내재적 문화코드가 의식 주체와 객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협적이었던 코로나 시국이 현재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 이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교수법의 지식 노드(node)들이 올바른 교양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지식체계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인 교수법 이행체계 역시 의미 있는 연구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온·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를 듣는 대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탐색적 수준의 학술적, 실용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현재의 대학 교양교육 체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교수법, 강의내용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본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강의 중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행위적 측면에서의 연구 성과가 교육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 시국의 실시간 온라인

대학교양강좌와 그 이후에 진행된 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에 참여한 학습자의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관련 변수 중의 하나로 강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로 대비되는 대학교양강의 환경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 및 그에 따른 인식체계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는 강의가 진행될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상황적, 환경적 요인에 심리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결과는 대학생들이 대학교양강좌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인식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체를 구체화하여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육매체 개발 및 운영 방안에 적용 가능하다.

본격적인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인식체계가 지닌 기호적 표현과 실재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등가법칙이나 인식 주체와 객체 간 직접적인 관계의 설정 정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학 교양교과의 지속가능한 외연 확장과 실천 지식의 내재화를 위한 상호작용에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각 대학은 학습자와 교수자, 상황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현재 활발하게 변용되고 있는 문화구조에 대응하고, 이를 교육체계 설계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 다수가 수강하는 대학교양강좌에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수자들은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상술한 바와 같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대학교양강좌를 설계하고, 관련 지식생태계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문조, 『디지털 한국 사회의 이해』, 집문당, 2006.

김문조, 「한국 정보 문화의 특성과 현황」, 『사회와 이론』, 제16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0, 117~144쪽.

김문조, 『융합문명론: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나남, 2013.

민웅기 · 김상학,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집합기억과 시민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40권 제2호, 2021, 57~84쪽.

미셸 마페졸리, 『현대를 생각한다: 이미지와 스타일의 시대』, 박재환 · 이상훈 공역, 문예출판사, 1997.

박인철, 「현상학의 학문성과 지평성: 후설 후기 철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53집, 철학연구회, 2001, 225~247쪽.

박인철,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아카넷, 2015.

손민호 · 조현영, 『민속방법론: 현상학적 사회학과 질적 연구』, 학지사, 2014.

안소니 기든스, 『사회이론의 주요 쟁점』, 윤병철 · 박병래 공역, 문예출판사, 1991.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제7판), 김미숙 외 공역, 을유문화사, 2014.

오미영 ·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알기 쉬운 커뮤니케이션 길라잡이』, 커뮤니케이션북스, 2021.

유평근 · 진형준, 『이미지』, 살림출판사, 2005.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이기상 · 박범준, 『소통과 공감의 문화콘텐츠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HUINE), 2016.

이진경, 『노마디즘: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1, 2』, 휴머니스트, 2002.

조지 리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김종덕 · 김보영 · 허남혁 공역, 풀빛, 2017.

존 버거,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사회』, 강명구 역, 나남출판, 1999.

폴 A. 벨 · 토마스 C. 그린 · 제프리 D. 피셔 · 앤드류 바움, 『환경심리학』, 이진환 · 홍기원 공역, 시그마프레스, 2008.

피에르 테브나즈, 「옮긴이의 말: 현상학적 사유란 무엇인가?」,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후설에서 메를로퐁티까지』, 김동규 역, 그린비, 201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문화 이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 정보문화 현황 진단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2017.

Beck, Ulrich,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trans. by Mark Ritter, Sage Publications, 1992.

Beck, Ulrich, & Beck-Gernsheim, Elisabeth,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2002.

Boorstin, Daniel Joseph,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Harper & Row, 1964.

Brehm, Sharon Stephens, & Brehm, Jack Williams, *Psychological Reactance: A Theory of Freedom and Control*, Academic Press, 1981.

Bryan, M. E., & Tempest, W., "Are our noise laws adequate?", *Applied Acoustics* 6(3), 1973, pp. 219-232.

Colaizzi, Paul 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edited by Ronald S. Valle & Mark King,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Deleuze, Gilles, & Guattari, Félix, *What Is Philosophy?*, trans. by Hugh Tomlinson & Graham Burchell,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Garfinkel, Harold, & Sacks, Harvey, "On Formal Structure of Practical Actions", edited by John C. McKinney & Edward A. Tiryakian, *Theoretical Sociology: Perspectives and Developments*, pp. 337-366, Appleton-Century-Crofts, 1970.

Garber, Judy, & Seligman, Martin E. P. (Eds.),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s*, Academic Press, 1981.

Guba, Egon G., & Lincoln, Yvonna S.,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1981.

Husserl, Edmund,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s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An Introduction to Phenomenological Philosophy*, trans. by David Carr,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Ittelson, William H.,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urban experience", *Environment and Behavior* 10(2), 1978, pp. 193-213.

MacCannell, Dean,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Macmillan, 1976.

Mason, Jennifer, *Qualitative Researching*, 2nd ed., Sage, 2002.

Rodin, Judith, & Baum, Andrew, "Crowding and Helplessness: Potential Consequences of Density and Loss of Control", edited by Andrew Baum & Yakov M. Epstein, *Human Response to Crowding*, pp. 389-401,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78.

Rose, David H., Meyer, Anne, & Hitchcock, Chuck (Eds.), *The Universally Designed Classroom: Accessible Curriculum and Digital Technologies*, Harvard Education Press, 2006.

Stake, Robert Earl,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1995.

Strube, Michael J., & Werner, Carol, "Psychological reactance and the relinquishment of contro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2), 1984, pp. 225-234.

접 수 일 : 2023년 08월 21일
심사완료 : 2023년 09월 13일
게재결정 : 2023년 09월 13일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System of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of Online Liberal Arts Co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Offline Ones after the Era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Interaction Theory

Min, Woong-Ki(Mokwo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phenomenologically the perception system of real time online university liberal arts co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normal offline ones in the post-COVID-19 era that domestic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d using an in-depth interview. Their perception system which has been inherent from the experience of real time online courses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action theory at this time when they have normal offline ones. The students who had no choice but to take the real time online courses that were conducted structurally over the nation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 due to COVID-19 are taking currently offline ones. Their perception system of online and offline courses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f interactivity: the situational behavior of students as an actor,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lecture structure. The interactivity category of situational behavior is again divided into two theme clusters: indexicality and reflexivity while the interactivity category of the environment is into two theme clusters: socio-psychological constraints and virtuality in information culture. The ambivalent perception system of the students' experience of online

university liberal arts co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offline ones after the era was analyzed based on a communication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action theory, an area of research methodologies in the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And this phenomenon that the perception system becomes obvious can be said to be a process of reconstructing the meaning between the conscious subject and the object, including a social psychological concept.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accurately get the meaning of interaction theory of such cultural phenomenon and to implement a more systematic diversity of the structure of university liberal arts courses when establishing new on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is completely over.

[Key Words] COVID-19 pandemic era, Real-time online university liberal arts course, Offline university liberal arts course, Situational behavior, Environment, Interactivity